
머리말

『역사와 증언』은 한여름 휴가의 짧은 기간에 쓴 것으로, 일반 독자들을 안중에 둔 것이었다. 그런데 그것이 10판을 거듭하게 됨에 따라 저자에게 점차 중압감을 가중했다.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다.

따라서 그것을 개정 보완하기로 했는데, 예상 외로 새로운 또 한편의 책이 되고 말았다.

이 책을 쓰면서 다음 몇 가지 조건을 안중에 두었다.

성서를 정말 알고 연구하려는 이들에게 성서의 핵심을 일관해서 제시함과 더불어 꼭 필요한 사실들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밝히기로 했다.

성서는 한 번 읽어버리면 되는 책이 아니다. 그것은 거듭 배우고 스스로 분석하고 새로운 해석을 해야만 한다.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 공부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나 그룹으로 함께 토의하면서 읽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. 이 글은 그런 목적에 상응되는 것이 되기를 바랐다.

이 글은 전문적이 아니다. 대학생 이상의 지식을 가진 이는 읽을 수 있다. 그러나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에 깔고 썼다. 그래야만 출발부터 정확한 근거를 가진 지식이 되겠기 때문이다. 이 글이 신학

대학 초급반의 교재나 교회 안의 학생들과 청년들의 성서연구의 자료가 될 경우를 안중에 두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전제로 했다.

이 책에서 최신까지의 성서연구의 결과를 저자의 지식이 미치는 한 반영했다. 그러므로 『역사와 증언』과 같은 것에서도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.

이 책의 제목을 ‘역사와 해석’이라고 한 것은 ‘역사와 증언’과 구별하기 위함도 이유의 하나지만, ‘해석’에 새로운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. 성서는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반복하면 침묵한다. 그것은 물어야 대답한다. 해석자란 자기의 선 자리에서 성서에 묻고 대답을 찾으려는 자이다. 그러므로 자기 선 자리, 현장에 충실하지 않고는 바른 해석이 불가능하다. 성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증언이다. 이 증언을 우리는 반복할 수만은 없다. 그것이 나의 것,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삶과의 대결에서 해결해야 현재의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된다.

이 글을 완성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. 그것을 정서해준 신학석사 강일상 군과 나의 조카 정임에게 감사한다.

1981. 10.

안병무